

# '수업혁신, 교사 전문성 신장에서'

### 도교육청, 수업나눔 실천교사제 등 수업 전문성 향상 위한 지원책 펼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수업나눔 실천교사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수업나눔 실천교사제는 도내 초·중·고교사 130여 명으로 구성된 학습공동체로, 수업나눔 문화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교내·외 교사 3~5인으로 조직된 각각의 팀은 동료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됐다.

팀 구성원이 함께 모여 창의·융합 수업을 연구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한 후 이를 수업에 공개한다. 이후 심층 협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수업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개인 또는 팀만의 실천이 아니라 인근 학교의 동료 교원들과 수업을 나누면서 수업공개 협의 문화를 확산

하고, 교직사회를 학습조직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교육청은 그 과정에서 수업나눔 실천교사들은 물론, 전 교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수업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업혁신 지원단, 단위학교 수업나눔 교사연수회, 창의·융합수업 실천학교, 수업혁신 기본·심화 연수, 지역 중심 수업나눔 공동체, 수업혁신

저경력 교사 연수 등도 운영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각각의 정책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함으로써 전북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등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수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실혁명은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수업혁신을 통해 이뤄지며,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받고,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서 교육감, 기능경기 입상 학생에 메달 수여

### 직업계고 학생 92명 입상

서거석 교육감이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학생들을 축하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린 제53회 전북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뛰어난 실력으로 입상한 학생 선수들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했다.

지난 3~7일 5일 간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도내 16개 직업계고에서 152명이 참가했다.

이중 자동차 정비, 게임 개발, 산업용 드론 제어 등에서 금메달 26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23개, 장려상 18개 등 총 92명이 입상했다.

직종별 입상자에게 상장과 메달이 수여됐으며, 이들은 관련 분야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오는 10월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제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서 교육감은 "각 학교를 대표해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학생 선수들이야말로 이번 대회의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수한 기술 인재로 성장해 미래의 신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린 제53회 전북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대회에 입상한 학생들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 차세대 반도체 구현 솔루션 '집대성'

전북대 허근 교수팀  
실리콘 대체할 후보  
'칼코겐 물질' 연구

기술적 장벽 극복 위한  
합성·응용 전 단계 제시

전북대학교 허근 교수 연구팀(반도체과학기술학과)이 차세대 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복합체의 연구 방향과 원소자, 메모리, 센서소자 등의 응용 원리 및 메커니즘을 집대성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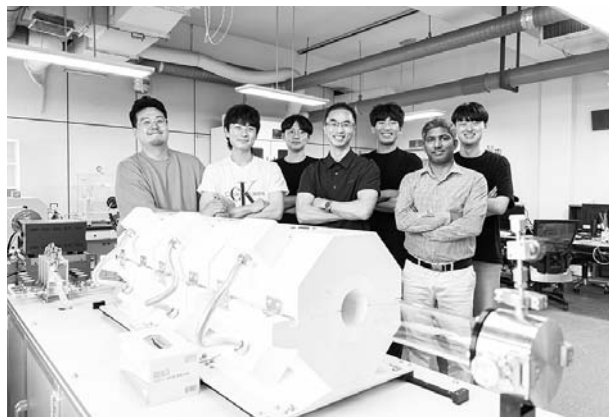
이번 연구 결과는 기능성 원소소재 분야 탑 저널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 최신호에 게재됐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허 교수팀의 이번 논문은 연구팀이 지난 5년간 축적한 연구 결과에 기반해 전이금속 칼코겐 물질의 근본적인 물성을 세밀히 분석해 로직/메모리/인공지능 반도체, 광반도체, 각종 센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리적·기술적 장벽이 존재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다.

특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기술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전이금속인 6족 디칼코게나이드(TMD) 물질에 비해 월등한 광대역 반응성을 지닌 7족 TM1물질들을 소재로 삼았다.

연구팀은 이를 '모넨가립'과 '에피택시얼'을 활용해 공정 결함이 없는 나노결정 박막을 합성하는 기술과 화학적 도핑을 이용한 전기적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이등방성(異等方性) 단결정 나노핀들의 적층 및 측정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소재의 광학, 전기·화학적 기능성을 극대화 해 차세대 기능성 반도체소자 구현하는 기술을 합성과 응용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솔루션을 세밀하게 제시했다.

허 근 교수와 주저자인 장현식 박사는 "이번 연구는 우리 연구실에서 지난 5년 동안 축적한 차세대 반도체 관련 성과들을 집대성한 것이"라며 "차세대 기능성 반도체 구현을 위한 한계 돌파 방안들을



전북대학교 허근 교수 연구팀.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세밀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이금속 칼코겐 물질(TM1)은 땀글링본드(dangling bond)가 없는 표면특성을 지니는 원자수준 두께의 극박막 반도체 물질로, 미세화의 한계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실리코늄 이용 차세대 반도체 물질의 유력 후보로 학계와 산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허 근 교수와 주저자인 장현식 박사는 "이번 연구는 우리 연구실에서 지난 5년 동안 축적한 차세대 반도체 관련 성과들을 집대성한 것이"라며 "차세대 기능성 반도체 구현을 위한 한계 돌파 방안들을

세밀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이금속 칼코겐 물질(TM1)은 땀글링본드(dangling bond)가 없는 표면특성을 지니는 원자수준 두께의 극박막 반도체 물질로, 미세화의 한계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실리코늄 이용 차세대 반도체 물질의 유력 후보로 학계와 산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허 근 교수와 주저자인 장현식 박사는 "이번 연구는 우리 연구실에서 지난 5년 동안 축적한 차세대 반도체 관련 성과들을 집대성한 것이"라며 "차세대 기능성 반도체 구현을 위한 한계 돌파 방안들을

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활동 버스 운영, 동아리 공연, 장기자랑, 푸드트럭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제공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준비했다.

학생활동을 주관한 임기욱 학생처장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학생들의 다양한 끼를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대학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즈힐스 캠퍼스와 북수학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양오봉 전북대 총장(오른쪽)과 토머스 A. 퍼햄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즈힐스 캠퍼스 총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美 대학과 북수학위제 추진

### 간호학·컴퓨터과학 사이버 보안 분야 석사 과정 전북대,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즈힐스 캠퍼스와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즈힐스(총장 토머스 A. 퍼햄)와 북수학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일 토머스 A. 퍼햄 총장과 사타 하라리 II 인포라부처장 등이 전북대를 찾아 양 오봉 총장과 조화립 국제협력처장 등을 접견하고 국제협력력을 위한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간호학과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북수학위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논의했다. 특히 컴퓨터과학 분야 중에서도 국제사회 주요 이슈인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분야에서 석사 과정의 북수학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서는 해외 주요대학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꿈을 펼치고, 대학역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햄 총장은 "전북대는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학으로, 대학 간의 긴밀한 교류가 양 대학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세부 논의를 거쳐 협약 내용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즈힐스 캠퍼스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 속한 23개 캠퍼스 중 하나로, 학생 규모만 1만7,763명에 달한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교육행정 등 9개 직렬 159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4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교육행정(101명), 전산(7명), 사서(5명), 공업(4명), 식품위생(3명), 시설(8명), 기록연구(2명), 시설관리(11명), 운전직(18명) 등 9개 직렬에서 총 159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14일 오후 6시까지 전북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사이트(<http://educruit.jbc.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취소가 필요한

경우 17일 오후 6시까지 동 사이트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후 필기시험은 6월 10일, 면접시험 8월 4일 각각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8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소식)시험/채용/구직/지방공무원 시험)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오는 8월 21~25일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정은성 기자

## 지역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

### 전주교대, 김제 등서 매칭학교 9곳 선정 19개 프로그램 운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2023년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소재 중·고교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전주교대는 김제, 부안, 순창, 장수, 정읍, 진안 지역에서 매칭학교 9개교를 선정해 심화학습, 동아

리, 방과후, 주말강좌 등 19개 프로그램을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전주교대 교수 9명이 참여한다.

박병준 총장은 "이번 사업의 프로그램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원광대,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와 MOU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한중관계 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와 일본 류큐쿠대학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일본 류큐쿠대학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는 일본 내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사상을 연구하고 조명해온 연구센터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장 김정현 교수는 "이수민 전 센터장 재임 때부터 양 기관이 교류를 이어왔다"며 "동북아시아 평화 공생체 구축의 일환으로 한중 밀도 있는 교류 증

진을 위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협약식은 최근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MOU를 계기로 오는 6월 1일 오후 노쓰캐사 센터장을 비롯해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 구성원들이 원광대를 방문해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와 학술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공동학술회의를 시작으로 양 기관은 향후 다양한 교류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인문·사회학적 평화지원을 찾고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국립군산대 캠퍼서 '봄, 빛' 축제 개최

국립군산대학교가 개나리, 벚꽃 등 봄기운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봄, 빛' 축제를 개최했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농구코트장 옆 야외무대 일대에서 진행된 이 축제는 한빛총학생회와 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군산대학교의 아름다운 봄 캠퍼스를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는 미니게임 4종 경기, 거트발탁지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참여자